

작품 내용

제 목	교과용도서보상금 13,970원을 받았습니다
내 용	얼마 전 지인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우연히 '교과용도서보상금'이라는 낯선 제도를 전해 들었다. 과거에 발표한 글이 교과서나 보완교재에 인용될 경우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이야기였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해당 시스템에 접속했다. 키보드로 이름을 두드리고 검색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화면이 전환되고 내 이름의 보상금 내역이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내가 오래전 썼던 글의 몇 문장이 한 교과서 출판사의 보완교재에 실렸고, 그에 대한 대가가 산정되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13,970원. 서울 변화가에서 커피 두 잔을 마시면 순식간에 증발해 버릴 지극히 소박한 액수다. 몇 번의 마우스 클릭으로 지급 신청을 마쳤고, 며칠 뒤 은행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다. 통장 잔고 앞자리를 바꿀 만한 경제적 사건은 결코 아니었다. 하지만 계좌에 찍힌 이 양증맞은 숫자는 내가 근래 경험한 어떤 것보다도 묵직하고 강렬한 통찰을 던져주었다. 그것은 촌촌하게 짜인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지적 인프라'가 잘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맥박이자, 문명의 수준을 보여주는 영수증이었다. 우리는 보통 인프라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거대한 물리적 구조물들을 떠올린다. 육지와 섬을 잇는 다리, 길게 뻗은 고속도로, 해저를 관통하는 광케이블망 같은 것들이다. 하지만 가장 고도화된 사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프라 위에서 움직인다. 누군가 책상 앞에 앉아 고독하게 텍스트를 집필하고, 그 문장이 세상에 나와 공교육 현장의 교과서나 보완교재에 스며들며, 중국에는 수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원작자의 계좌로 13,970원이라는 숫자로 환산되어 돌아오는 이 기나긴 궤적을 상상해 보라. 이 순환 고리야말로 한 국가가 개인의 사유와 지적 노동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밀한 척도다. 저작권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내 것을 베끼지 못하게 막는 배타적 울타리'로 치부하는 것은 시대에 걸맞지 않은 빈곤한 상상력이다. 21세기 초연결 사회에서 저작권은 지식의 흐름을 억누르는 담이 아니라, 창작이라는 거대한 생태계 전역에 물을 대는 관개 시설에 가깝다. 내가 겪은 교과용도서보상금 제도는 이 관개 시설이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단면이다. 공교육이라는 중대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저작물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두되, 그로 인해 창작자가 일방적으로 희생당하지 않도록 사후에 보상을 제공하는 지적인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는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권리가 충돌하지 않고 얼마나 우아하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정보 복제가 호홉보다 쉬워진 오늘날의 세계는 겉보기엔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상 지적 자본에 대한 무자비한 착취가 벌어지기 쉬운 무대다. 타인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행위가 너무도 매끄럽게 이루어져 범죄라는 감각조차 마모된다. 이러한 야성의 공간에서 저작권 시스템은 고요하지만 단호하게 질서를 부여한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가치 있는 생각들이 인터넷상의 허공으로 증발하거나 누군가의 이기심에 의해 헐값에 소진되지 않도록 지켜낸다.

만약 내 글이 아무런 보상 시스템 없이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무단으로 소비되었다면 어땠을까. 13,970원이라는 액수 자체는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 않는다. 하지만 창작을 지속하게 만드는 동력은 자본의 크기에서만 기인하지 않는다. 자신의 목소리가 세상에 가닿았고 사회가 그것을 나름의 무게로 달아주었다는 '인정'에서 비롯된다. 13,970원은 이 사회가 내게 보낸 작은 존중이자, 앞으로도 계속 사유하고 글을 써달라는 묵시적인 독려였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이디어가 빛의 속도로 국경과 기기를 넘나드는 공간이다. 이곳에서 창작물을 보호한다는 것은 더 나은 아이디어와 혁신이 지속적으로 탄생할 수 있게 하는 비옥한 토양을 가꾸는 일이다. 농부가 씨앗을 흙쳐 먹는 새를 내버려두면 결국 다음 해 농사를 망치게 되듯, 창작자의 권리를 방치하는 사회는 머지않아 빈곤한 문화적 흉작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저작권을 존중하는 문화는 그 자체로 다음 세대 창작자들을 키워내는 가장 강력한 인센티브로 작동한다.

오늘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텅 빈 화면을 응시하며 새로운 문장을 뱉어내고,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던 멜로디를 흥얼거리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고독하고 치열한 작업이 있기에 우리는 매일 더 풍요로운 정신적 세계를 경험한다. 내 통장에 찍힌 13,970원은 그들의 땀방울을 결코 공짜로 증발시키지 않겠다는 이 거대한 지적 인프라의 약속이었다. 이 작은 보상금의 궤적 속에서 우리 사회가 굳건히 지켜내야 할 창작의 존엄과 내일의 문화가 찬란하게 피어날 든든한 대지를 본다.